

승·대·극·회·제·16·회·신·입·생·환·영·공·연

주최
승실대학교
승대극회

꿈먹고물마시고 꿈그물

작·이근삼
기획·김상겸
연출·양현준

일시: 92년 5월 28일(6시)

29일(2시·6시)

30일(1시·5시)

장소: 승실대학교 대학극장(제1공학관 3층)



초대의 글



극 회 장

양 현 준(법 90)

28년의 긴 역사를 가진 숭대극회가 여러분 앞의
또 하나의 발자욱을 남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몸놀림에 여러분도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두달여동안 고생하신 숭대극회원,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품분석

작가소개

평양태생, 극작가, 現서강대 교수
동국대 영문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원졸업
1960年 「원고지」라는 작품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세계는 몇가지 큰 특징이 있다.

먼저 음악적 요소의 도입이 그것이다. 뮤지컬 작품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아니한 작품에도 많은 음악적 요소를 도입해 극적제시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다음으로 서사극적요소, 표현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들수 있으며, 고정화된 연극공간 개념을 깨트리고 확장시켰다. 그의 작품 가운데 많은 작품들이 설명역의 등장이나 과장, 왜곡시킨 표현주의적 인물이 많이 등장한다. 또, 사실주의적인 무대장치를 사용하지만 그 사용에 있어 기존 연극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물론 이근삼氏의 이러한 작품세계에 대해 서구사조에 대한 수용이나, 차용이나, 모방이나, 창조이거나에 관한 비판이 없지 않으나 그는 우리 연극사에 움직일 수 없는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작

『국물』 『사옵니다』
『제18공화국』
『원고지』 등등.

자 매 분 식

TEL. 816-9835



백/마/당/구/장

최신 시설로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 숭실대점문

공연을 축하합니다.
컴퓨터 시스템
숭실대학교 안경부
실로암안경원
교내) 820-0884
TEL. 826-7875

고풍스러운 분위기
학사주점
지하 •
● 숭실대점문
옛촌
TEL. 813-6235

작품분석

작품의 줄거리 및 작품분석

이 작품도 여러가지 면에서 작가의 작품세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설명역의 등장을 살펴보면 이는 서사극적 요소의 도입니다. 설명역은 극 전반에 걸쳐 나레이터의 역할도 하지만, 극중간동안에 여러가지 역할을 나누어 맡으면서 관객을 항상 객관적 위치에 있게 한다. 즉 설명역은 극중 장면과 관객들 사이에 이화작용(異化作用)을 촉진시켜 극중장면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례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음악적 요소의 극적제시 수단을 살펴보면 물론 이 작품은 뮤지컬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삽입곡이 아니라 설명역의 창, 등장인물들의 노래에 극의 주제내용을 실어놓았다.

무대장치는 곧 헐리게 될 서민아파트의 거실이다. 급하게 부실공사로 부수고 또 짓는 아파트에서는 따뜻한 사랑보다는 차가운 도시의 이기주의를 느끼게 한다. 극은 이 아파트에 두여자와 우연히 한 남자가 같이 살면서 시작된다. 슈퍼마켓의 종업원을 하면서 전자계산실에서 근무한다고 속이는 복희는 도시에 와서 많은 고독감을 느낀 여자이다. 술집에서 일하면서 야간대학생으로 행세하는 진자는 아버지가 안계셔 어린 나이지만 어린 동생의 학비를 도와줘야 한다. 식품회사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대문은 사실은 식당주방장이다. 대문은 순진하고 의협심이 강해 앞뒤 생각하지 않고 나서기를 좋아한다. 이들 세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도시생활과 자기불만족에서 오는 고독감을 느낀다. 복희는 그 고독을 자기 비하로써, 진자는 동생들을 꼭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대문은 이일 저일에 천방지축 뛰어들면서 해소한다.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대문을 사이에 두고 두여자 사이의 사랑 줄다리기가 볼거리로 주어진다.

대문의 편지장난에 상심한 복희는 다시 시골로 내려가려하고 진자는 대문의 행동으로 직장을 잃게 되고, 대문 역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식당에서 쫓겨난다. 세사람은 서로가 자기의 처지를 속인 것을 알게 되고 세사람은 헤어져 각기 자기 길을 가지만 세사람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정이 짹트게 된다.

이 작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가벼운 소재를 희극적으로 처리해 한낱 웃음거리로 볼 수 있으나, 급하게 지었다가 부수고 쉽게 또 짓는 서민 아파트같은 인스턴트식 사랑과 인간관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웃음속에서 진실을 느끼게 해준다.

기획의 변



김 상 겸(전자 91)

우리는 자신의 풍족한 삶을 너무도 잘 짜여진 틀로 인해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누구나 한번쯤은 모든 것을 잊고 무계획적인 삶을 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그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운 벌거숭이의 그것이다.
그동안 수고하신 선후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림픽 당구장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TEL: 816-1594

· 송실대

대학당구장

최신설비 송실대 정문
아늑한 분위기

T.814-5695

승실 노래방

스트레스를 후문 정문
어디서 푸십니까?

T.814-0277

루 T.823-9605
비 멋을 창조합니다.
나

송실대 정문

무대를 만든 사람들



무대감독
권형진(무역 86)



무대미술
정현용(법 87)



분장
이경희(산공 89)



소품
장윤정(법 89)



기획보
남재우(전자 90)



조명
이충희(전기 91)



무대장치
송근호(기계 87)



의상
홍은영(법 89)



홍보
손진용(산공 87)



음악
김진경(연세대. 작곡 90)

연출의 변



양현준(법 90)

짧았던가?

길었던가?

그대와의 이 시간도 막이 내려지면 끝인 것을
나도 잊혀지고 그대도 잊겠지.

그대의 야원 얼굴을 피하려는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할지 ...

연회석완비 한식전문
두/메/골
승실인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승실대
TEL. 813-3655

로얄BOX
지성인들의
휴식처!

후문
승실대 정문
TEL: 812-2455

경양식 & **호프전문점**
비에로

TEL: 812-5768 •승실대

Hof & 학사주점(정통 동동주)
만남의 광장

TEL: 814-9116
•승실대

무대로 올라간 사람들



설명역A
김상겸(전자 91)

왜 우린 자신도
모르는 진실을
남에게 끊임없이
강요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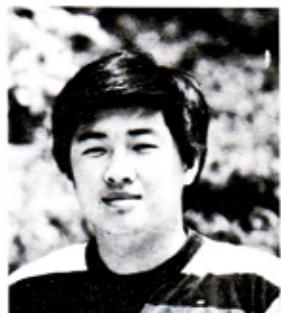


복희
김소희(독문 91)

복희는
내안에 갇혀있는
나의 다른 모습.
그러기에
난, 이 여자를
사랑할 수 밖에 없다.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연극인가?



설명역B
김은성(정·통 92)

갈증, 허무, 고독
빈 공간만이 남은
이곳에 이제 나의
존재를 채워야
하지 않을까?



진자
이명희(불문 92)

순결한 호흡을 품고자
거친 한숨을 몰아
쉬어도 역시 가슴에
담아둔 열정을 불어
내기엔 내모습이 너무나
여렸기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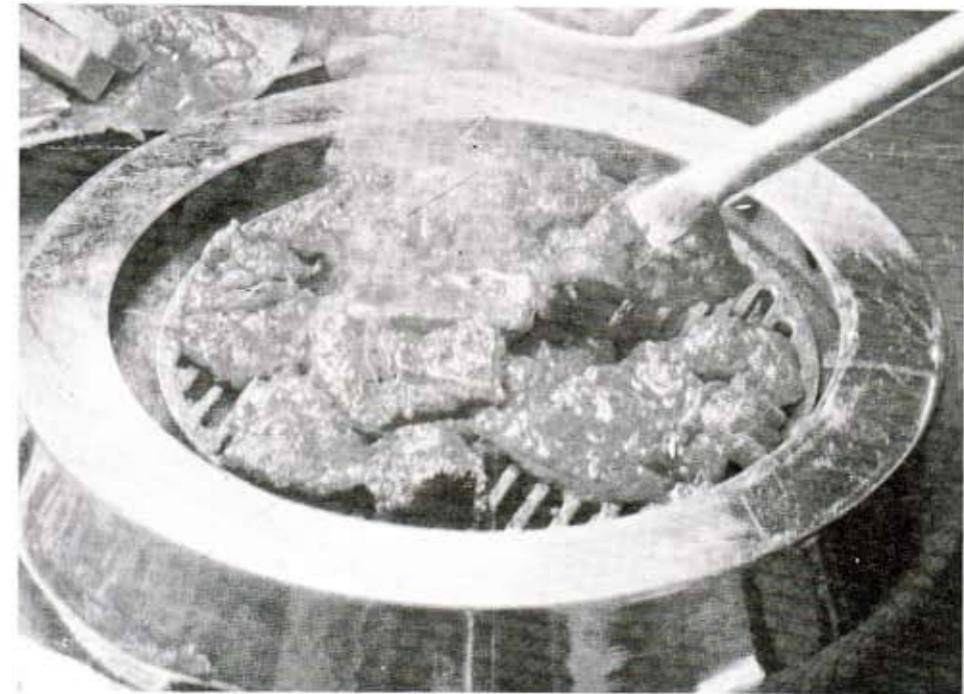
축
OPEN
기운풀 증정



월드 쇠고기부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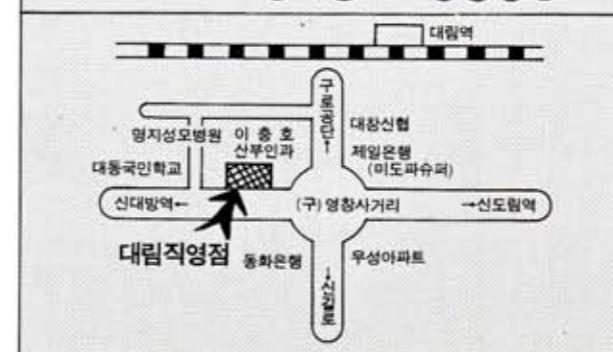
“ 저렴한 가격으로 정통쇠고기부페를 마음껏 즐기세요! ”

(어른 ₩4,500원, 어린이 ₩3,800원)



- 본업소 월드에서는 정통 쇠고기부페를 부담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껏 즐기실수 있습니다.
- 각종 부위의 쇠고기와 산지에서 직송된 무공해 야채와 과일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음식은 천천히 마음껏 드시길 바라며 음식을 남기실 경우에는 20%의 요금이 가산됩니다.
유의 하십시오.

TEL : 843 - 8561



각종외식
직장회식

계모임
각종단체환영

과회식 환영

월드쇠고기부페사업본부
TEL : 831-4058

정기공연 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921년 6.13	연희소인극 "절세영웅 나풀 레옹의 말로"		
	1923년 7.7, 21	전원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심년 후" "기계인간" 업옛청년회 주관		
	1923년 7.28, 29	"소인연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1	1965년 11.	"폐궁으로 돌아오다" 황영식作	이반	전진호
2	1968년 10.28	"Out Town" by Thom Wilder		이태주
3	1969년 10.10	"외자들" 이오네스코作		이태주
4	1969년 10.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5	1970년 5.15	"甦者와 생물"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제
6	1970년 10.28, 29	"승부의 終末" 사무엘 베케트作	김영기	
7	1971년 5.26, 27, 28, 31 回 演 劇 祭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진널목 살화" 윤조병作 "담배해독에 對하여" 안토 채홍作 "황금단지" (로마극) 푸라우더스작 "고도록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作	정종화 주정서 한영재 유근배 차현재	
8	1971년 11.4, 5, 11	"저격병의 그림자" 산 오케이시作		차현재
9	1972년 5.25, 26, 27	"생일파티" H. 펀터作		한영재
10	1973년 5.21, 22, 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워렌마트作		고보인
11	1973년 10.25, 26, 27	"방" H. 펀터作 "기도" (소극장) F. 아라발作	김득남	차현재
12	1974년 5.25, 28, 30	"정의의 사람들" (전5막) A.까뮈作		정종화
13	1975년 6.9, 10, 12, 13	"싸움터의 산책" "도스또예프스키 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안홍순
14	1975년 10.29, 30, 31	"비더만과 방화범" Max Frisch作	김기열	안홍순
15	1976년 6.1, 2, 3	"인터넷" 장 클로드 반 이델리作	김기남	김득남
16	1976년 10.25, 26, 27, 28	"뱀" 장 클로드 반 이델리作		김영덕
17	1977년 6.15, 16, 17, 18	"EQUUS" 피터 셋터作	백정식	김영덕
18	1977년 10.10, 11, 12, 13	"EQUUS" 피터 셋터作	방영철	김영덕
19	1978년 6.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作	방영철	김영덕
20	1978년 10.24	"EQUUS" (대학연극 연극제 참가) 피터 셋터作	민승기	김영덕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21	1979년 6. 18, 19	"한강299" 김영덕作	정재호	이병국
22	1979년 9. 29, 10. 2	"초분" 오대식作	이정일	황정순
23	1980년 11. 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作	엄세범	박양권
24	1981년 11. 12, 13, 14	"노부인의 방문" F. 워렌마트作	이종규	황정순
25	1981년 11. 12, 13, 14	"달빛이 꽃" 김병종作	전석근	황정순
26	1982년 5. 12, 13	"까리굴라" A.까뮈作	음태웅	지숙
27	1982년 10. 7, 8	"섀도우 박스" M. 크리스토퍼作	전희식	황정순
28	1983년 6. 20, 21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워렌마트作	전희식	김영덕
29	1983년 10. 7, 8	"트레버" John Bowne作	이원우	오정열
30	1984년 5. 24, 25, 26	"도가니" (The crucible) A. Miller作	이종규 엄세범	오세환
31	1984년 10. 11, 12, 13	"번천소" John Stoltenberg作	차세훈	이용섭
32	1985년 5. 9, 10, 11	"번민굴" Maxim Gorky作	김상현	이용섭
33	1985년 11. 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파레스키	하승민	송기범
34	1986년 6. 4, 5, 6	"에쿠우수" EQUUS 피터 셋터作	허성무	하승민
35	1986년 9. 11, 12, 13	"코뿔소" F. 이오네스코作	안상준	송기범
36	1987년 6. 3, 4, 5	"한여름밤의 꿈" W. Shakespeare	권형진 이준식	오정열
37	1987년 9. 10, 12, 13	"오해" A. Camus作	오정열	박경근
38	1988년 6. 2, 3, 4	"세변은 끔개 세변은 길개" 이어행作	이충일	오정열
39	1988년 10. 6, 7, 8	"안내놔? 못내놔!" Dario Fo作	권태수	송근호
40	1989년 5. 25, 26, 27	"농녀" 윤조병作	천승범	안선후
41	1989년 10. 10, 17, 18	"대성당의 살인" T.S. Eliot作	오정열	이반
42	1990년 5. 24, 25, 26	"안티고네" 장 아누이作	권태수	이준식
43	1990년 8. 30, 9. 1, 2	"한복연대기" 황석영作	천승범	이영민
44	1991년 5. 30, 31, 6. 1	"생일파티" H. 펀터作	남재우	권승혜
45	1991년 9. 5, 6, 7	"날개" 이상作	양현준	권형진
46	1992년 3. 19, 20, 21	"우린 나발을 불었다" 김상렬作	임경화 정현용	홍은영

신입생환영공연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75년 3. 10, 11, 12	"악마와 봄" W. Arning作		김홍수
2	1976년 10. 29, 30, 31	"보석과 여인" 이강백作		김득남
3	1977년 3. 16, 17, 18	"출발" 윤대설作	전경호	안홍순
4	1979년 3. 29, 30	"셋" 이강백作	한철	정재호
5	1981년 3. 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er作	이영민	오세환
6	1982년 3. 24, 25, 26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용관作	최시영	이용섭
7	1983년 4. 16	"블랙코메디" 피터 셋터作	전희식	홍예식
8	1984년 3. 8, 9	"개인의 소공간" N. Holland作	차세훈	김인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9	1985년 7. 20	"ARIA DA CAPO" E. St. V. Miller作	이영민	하승민
10	1986년 3. 17, 18, 19	"인형의 집" 헨리 일센作	이길영	김정은 위성신
11	1987년 3. 12, 13, 14	"머리운 손" J.P. 사르트르作	백윤현	박경근
12	1988년 3. 24, 25, 26	"불가불가" 이현화作	천승범	황금실
13	1989년 3. 23, 24, 25	"혹인수녀를 위한 진혼곡" A. Camus作	홍덕태	박경근
14	1990년 3. 8, 9, 10	"우울증 풍자" Botch Stair作	이영민	박혜숙 안상준 백로라
15	1991년 3. 7, 8, 9	"노크노크" 줄스파이퍼作	정현용	이범준

승대극회 제 16 회 신입생환영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배님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승실대학교 승대극회 동문회 일동



우리는 친구 다정한 친구.

경고하고 놔두게.

작곡 : 김진경

컴퓨터편곡 : 정기송

(현재 신혜철과 N·EX·T로 활동 중)

7
 8
 끌 라 끌 라 끌 라 끌 라 왜 그 럴 까? 왜 그 럴 까? 아침에 흙을 뜨 열
 웃으며 안 놓 세상이 유쾌 하다 살맛이 나네 열 어불운 강을 이
 놀아내리 듯 이- 물 아 치던 강풀이 사라져듯 - 이 우리 마음 햇빛
 그리고 장 미 밤이 되면 우울하게 울린 우리 - 들 - 이제는 소곤소곤
 다정하게 거내 쫄쫄하고 위로 됐던 가로등 도 - 이제도 다정하고 낯익은
 등대 불 워! 우리는 친구 다정한 친구 형제남매도 부러워 하는
 7
 8
 XXX XXXXX XXXXX XX
 우리는 세상에 저절로 험난하니 끌 라 끌 라 끌 라 그누구가 우리를 워라고 해도
 그누구가 우리길을 워라고 해도 우리는 풍아 우리는 기쁠까
 출근길 발걸음을 나뿐나뿐 나뿐 - 퇴근길 눈 망울은 초콜초콜 초콜
 앞날을 꿈꾸며 보는 기쁨도 있어 과거를 잊을 수 있는 여유도 있어
 너로 인해 너를 위해 살수있으 - 니 마하 우리는 친구 다정한 친구.